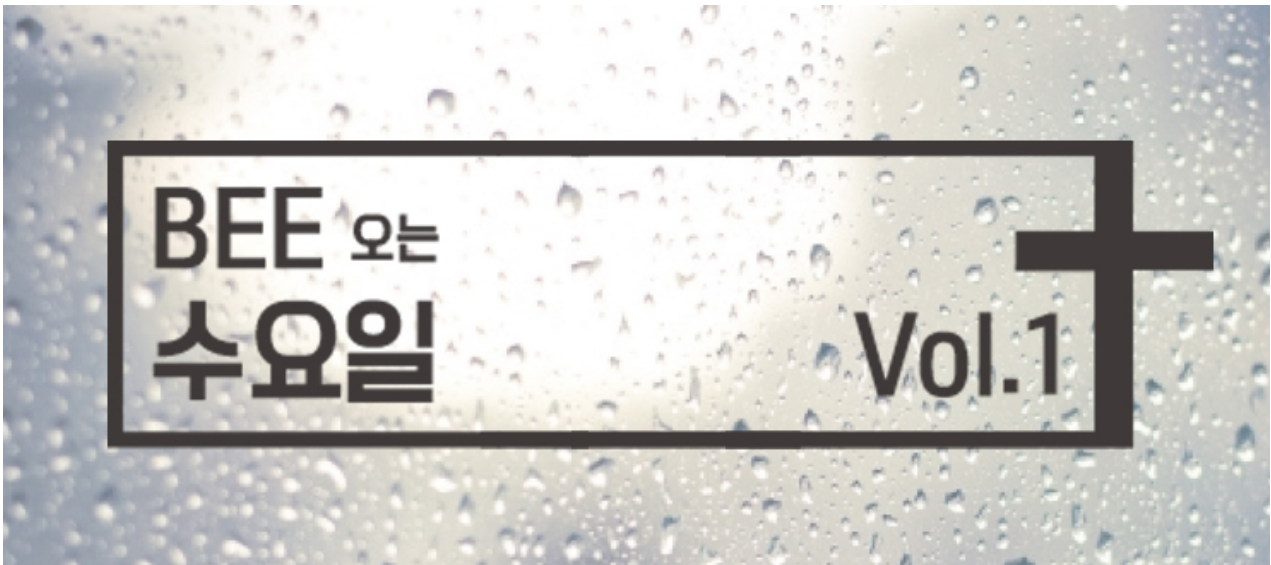




아홉번째 이야기

그의 Back Pack

온누리교회 1층 커피숍과 이천만광장 사이를 한 중년 남성이 벌써 몇 번째 왔다 갔다 합니다. 온누리교회 천정부터 바닥까지를 눈으로 쭈욱~ 훑습니다. 흡사 ‘우와~ 이게 말로만 듣던 온누리교회구나’ 하듯 입을 짹악 벌리고 서 있기도 합니다. 시원하긴 했지만 그닥 추운 날씨는 아니었는데, 꽤 두터워 보이는 아웃도어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균적인 한국인 보다 훨씬 큰 6척 장신에, 무엇보다 얼굴 피부가 평범한 한국인과는 확연히 구별된 정도로 그을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진 담당이신 조정문 집사님께서 촬영 당시, 카메라 플래시를 켜놓아야 했답

니다^^) 도저히 눈에 띄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외부인 아우라였습니다. 순간, 오늘 인터뷰 하실 분이 혹시 저 분 아닐까 축이 왔습니다.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그리고 네팔을 담당하고 계신 선교사님이라 소개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첫 인사를 나누면서 “선교사님인 줄 첫눈에 알았다”고 인사말을 건네자, 그 분은 “오우, 어떻게 아셨어요?”라면서, “영적으로 많이 민감하신 분이신가보다”고 제게 해주셨습니다. (과연, 제가 영적으로 예민해서 그 분을 알아본 걸까요? 여러분 ^^) ‘BEE 오는 수요일’ 아홉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예, 그 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박은형 선교사님이십니다. ^^



그는 ‘집 없는 선교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상 전 지구촌을 상대로 사역을 하다보니 오랫동안 편안하게 한 곳에 머무를 수 없는 선교사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에게 집은 매일 잠을 청하며 쉴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안식처라면, 그에게 아내와 딸이 있는 집은 언제 방문할 지 모르는 익숙하지만 낯선 곳 중 하나였습니다. (마치 온누리교회를 올 때 마다 그렇게 입 벌린 채 천정에서 바닥까지 훑으셨던 것 처럼) 그에게 진짜 집 만큼 친숙한 사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백팩이었습니다. 그의 백팩에는 세상 모든 곳을 갈 수 있는 곳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팩 품목 1순위는 녹색과 황토색이 어우러진 그의 트레이드 마크 점퍼입니다. 이는 그의 겹옷이자 이불이며 담요 역할을 합니다. 기온이 천차만별인 나라들을 다녀야 하는 그에게 모든 일교차를 극복하게 해주는 생명줄과 같은 친구입니다. 그의 백팩엔 언제나 물, 라면, 시리얼 등도 들어있습니다. 제 눈엔 간식거리 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생명을 위한 양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티슈와 썬크림도 꼭 필요하답니다. 시커먼 매연을 뚫고 다녀야 하기에, 화장실을 아무 때나 어디서나 찾을 수 없어서라는 설명을 들으며, 아이폰과 커피 텀블러가 필수 상비품인 저의 일상을 잠잠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른바 지구촌 오지 담당 선교사이신 그에게 “먹는 것은 정말 어떠시냐”고 여쭙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케냐 얘기부터 해주셨습니다. “케냐에 먼저 와 계신 다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양 머리를 모양 그대로 내오는 현지 음식을 도저히 먹지 못하셔서 고전 중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거뜬히 먹어버리니까, 현지인들이 그 선교사님 보다 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헤헤)” 설명은 이어졌습니다. “그 외엔 개구리를 통째로 찢는 것도 먹어봤고요, 도마뱀이나 이구아나도 먹어봤는데, 아~ 정말, 족제비 혀는 도저히 못먹겠더라고요~” 이 얘기가 진행될 당시 우리는 두 번째 인터뷰를 위해 신림동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이것저것을 집어먹던 중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도마뱀-이구아나-족제비 혀로 이어지는 삼단콤보에, 저는 숟가락을 놓기에 이르렀고, 선교사님은 공기밥 한 그릇을 추가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현지인처럼 보인다는 대목에서 많이 뿌듯해 하셨습니다. 예를들면, “네팔에 사역을 다니다 보면, 자신에게 네팔 말로 길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하시는데, 얼굴에 씨익~ 하는 미소꼬리가 만들어지는 식입니다. 케냐에는 버룩과 이가 많드시면서, 제가 “어떻게 피해요?”라고 놀라자, ”물려야죠~“라며 하하 웃으시는데, 흡사 ‘버룩에게 물리는 일이 세상에 둘도 없이 즐거운 일’ 처럼 여겨졌습니다. 반대로 케냐에서 자신을 무싱고(백인)라고 부르는 데, 현지인 만명과 섞여 있어도 자신은 구별되는 것에 많이 안타까와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지가 생활 차원에서는 오지(奧地) 일 지 몰라도 사역 차원에서는 성지(聖地) 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특히 네팔 디나교회 얘기를 하실 때에는 그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도 눈가에 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우선 물리적으로 그곳에 이르는 과정이 그랬습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3일 걸려 도착합니다. 버스타고 하루 꼬박 달린 후 여덟 시간을 꼬박 걸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비가 허리까지 차오른 길을, 조금만 헛디디면 추락사 하기 쉬운 비포장 낭떠러지 길을 지나야 합니다. 랜드로버 차량 한대에 13명이 매달리듯 함께 타고 가야하

는 그 길 끝에 이르면, 그와 비슷한 과정을 통해 그곳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형제와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는 복음의 기쁨은 과연 어떤 느낌일까 상상해 봅니다. 추운 겨울 새벽 예배 가기가 귀찮아 TV로 예배를 대신하는 서울의 크리스천과는 차원이 다르겠구나 싶고. (물론 저는 아직 TV 새벽예배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케냐도 특별하지만 네팔이 BEE 코리아에게 참 특별한 곳이라고 강조해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어떤 선교사나 선교단체도 들어가지 않은 산악지대에 BEE 코리아만 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역지 중에는 하룻길이 있고 이틀길이 있어요. 걷는데는 이골이난 히말라야의 나라, 그곳 현지인들도 그 길을 가자 하면, 그래 가라 하고는, 자신들은 안 가겠다하는 정도의 길이예요. 그 길이...후훗.”



끝으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선교사로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신 점이 무엇인지 여쭙어 봤습니다. 잔잔한 성품과 낮은 톤의 목소리를 가진 그가 인터뷰 중 처음으로 목에 핏대를 세우며 열정을 다해 길게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기독교 선진국을 가보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교회의 건물은 참 아름답고 웅장하지만, 교회의 예배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면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대형화된 교회가 많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교회도 위기불감증에 걸리지 않았나 우려됩니다. 특히 22세 이하 청년, 청소년 복음화율은 4%대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네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심각성을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교회에는 아직 그 규모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외부 중소 지역교회에서 유입되어 유지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교회의 급격한 쇠락이 불보듯 뻔하게 예상 되는데, 우리는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고, 어디로 가야하는지,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제목입니다.”

(글: 최승호, 사진: 조정문, 편집: 최지영)

박은형 선교사님은...

1967년생. 부산외대 영어과 졸업. 총신 신대원 졸업. 목사안수 (1998) Grace Theological Seminary Doctor of Missionary 취득. 2003년 7월 BEE Korea 선교사 파송. 아내 김영신 사모와의 사이에 미국에서 고교 재학 중인 딸 성아를 두고 있습니다. 디지털 소통에 그리 능숙하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연락하는 게 좋겠냐 여쭙었더니, 이메일이 좋다고 답하셨습니다. ^^ 아직 ‘BEE 오는 수요일’을 받아보신 적도 없다십니다. 최근에 카톡을 오픈했다 하시니, 여러 회원님들께서도 선교사님을 카톡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BEE 소식

1. 5월 28 일 10시에 온비아 수료예배가 있습니다. 수료하시는 분들 축하드리며 계속 심화과목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 월1일부터 5일까지 이천선교본부에서 주관하는 여성선교사 리트릿에 린요아. 비느하스 선교사 참석합니다. 온전한 쉼과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3. 2016 여름방학 특강 (5-6월 개강)

월	화	목	토
오전	서빙고- 7월 예정	서빙고 - 7월 예정	
	교리론1	그리스도인의 생활(TL 대상)	
	콘서트홀 (5/30 개강)	양재 - 7월 예정	
	그분이 지으신 마음	성팔2	
저녁	B102 (6/13 개강)	서빙고 - 7월 예정	
	성팔1	고전(인도자반)	
	서빙고- 7월 예정	양재 (5/24 개강)	
	성연1	마가복음	
	양재 7월 예정	양재 7월 예정	7월 개설 예정반은
	그리스도인의 결혼	그분이 지으신 마음	추후 개설 확정 공지 후에
	믿음홀 (5/30 개강)		<세미나 정보>에서
	제자양육		신청 받습니다